

시화에 신·재생 에너지 단지 조성

안산시, 대송단지에 2015년 완공 ... 태양·수소전지에 풍력발전 입주

경기도 안산시는 시화호 남측 간척농지인 대송단지에 신·재생 에너지 관련 산업단지를 조성할 계획이다. 신·재생 에너지 산업단지는 시화호와 대부도 사이에 형성된 시화지구 간척농지 4396ha 가운데 264만㎡ 규모로 오는 2015년까지 조성될 예정이다.

에너지단지에는 태양광모듈, 태양전지, 박막형 태양전지, 태양열설비, 풍력발전설비, 수소연료전지, 조류연료화 등 신·재생 에너지 관련기업 500개가 입주하고 관련 연구단지와 지원시설도 들어선다.

이에 따라 2009년 중으로 신·재생 에너지단지가 들어설 지역을 농지에서 공장용지로 전환하고 기본계획 및 개발계획 수립해 산업단지 지정 및 고시 등의 행정절차를 완료함으로써 2011년 착공에 들어갈 계획이다.

안산시 관계자는 “안산은 신·재생 에너지 동북아 허브로 부상하는 동시에 4조7000억원의 생산유발과 5만명의 고용창출 효과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신·재생에너지단지가 조성될 시화호 주변에는 현재 50만 인구가 사용할 수 있는 25만4000kW급 세계 최대 조력발전소가 2009년 말 완공을 앞두고 있으며 인근 대부도에는 3000kW 규모의 풍력단지를 건설하고 있다.

또 대부도 누에섬 등 2곳에 1만5000kW와 2250kW급 풍력단지가 건설되는 등 대부도 인근이 신·재생에너지산업의 메카로 부상하고 있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08/12/22>